



**여의사회, 아동복지시설 자립준비청년 지원금 전달**

전주시여의사회가 엄마 마음으로 만8세 이후 자립해야 하는 보호종료(예정)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10일 전주시여의사회(회장 조수영, 조수영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가 아동복지시설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자립지원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전주시여의사회는 아동복지시설 자립 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온전히 적응하고 스스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금 전달 및 진료 지원 등 나눔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조수영 전주시여의사회 회장은 "아동 보호 시설에서 보호 기간이 종료된 청년들이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후원을 결정했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의 홀로사기를 응원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현옥 전주시 아동복지과장은 "아동복지시설 자립준비청년이 이번 후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태 기자



**남원 금지면 지사보험, 사랑의 김치 나눔 펼쳐**

남원시 금지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김명곤)는 지난 9일 면 문화누리센터에서 관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김장김치를 전달하며 안부도 살피는 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사랑의 김치 나눔 봉사에는 해표식품영농조합법인(대표 강성균)에서 고춧가루 80근을 후원하고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김장을 위한 재료 구입, 배추질 및 재료손질, 양념 버무림까지 손수 진행했다. 협의체 회원들은 "이번 김장봉사를 통해 지역의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날씨에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농협, 농협장배 게이트볼대회 개최**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지난 8일, 춘향골체육공원에서 임직원과 조합원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5회 남원농협 조합장배 게이트볼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남원농협의 게이트볼 대회는 농촌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조합원들과 가족들은 오랜만에 대회를 즐기며 화합했다. 한편 박기열 조합장은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로 조합원의 생활체육으로 선호되는 게이트볼대회를 마련 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촌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반 마련에 더욱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인화물질제거사업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1일~12월5일) 동안 산림연접지 위치한 농경지 대하여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추진하여 산불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산불발생 통계에 따르면 소각산불은 주요 산불 발생 원인으로 무주국유림관리소 관할 4개 시(군: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남원시)에 대하여 순찰 및 사전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확보하고, 인화물질 제거반(4명 1개조)로 편성 및 운영하여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산림연접지에 위치한 농경지를 대상으로 제거사업을 실시한다. 관할지역 마을주민은 "가을철 영농부산물을 어떻게 처리 할지 항상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제거사업을 통해서 산불도 예방하고 밭에 거름도 되니 정말 고마울 따름이다" 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2022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열려**

**전북농협-KBS전주방송총국 김장김치 1만kg 떡국떡 500kg 전달**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KBS전주방송총국과 공동 주최로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교육감, 윤정이 여성단체협의회장, 목영숙 도지사 부인, 유광수 교육감 부인 및 14개 시장·군수 부인, 장경민 농협은행 전북본부장(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위원장 박병철), 농가주부모임(회장 이경자), 고향주부모임(회장 정명숙) 등 300여명과 함께 10일 KBS전주방송총국 잔디광장에서 2022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10일 개최했다. 이번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는 (주)하림(대표 정호석),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본부장 김도형),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동수)가 후원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및 초등학생(반월초)들의 김장체험, 김장배추 직거래 장터, 축산물 할인판매, (주)하림 시식코너, 한돈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등이 함께 진행됐으며, 김장나눔 행사로 마련된 김장김치 10,000kg과 떡국떡 500kg은 지역 내 취약계층 및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김장나눔 행사에 적극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다"며 "전북농협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상생가치 실현 및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김관영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모민의 사랑을 담아 김치 한포기라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전부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적극 육성하고, 전북 농산물의 판로 개척 등 농식품 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농협은 농업인에게 희망을 어려운 이웃에게는 사랑을 기부자에게는 보람을 주는 상생의 농산물 소비촉진 운동의 일환으로 이번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준비했다. 여기에 지역농협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김장김치 등 나눔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덕진소방서, 소방의 날 맞아 어린이들 방문 응원**

'제100주년 소방의 날(9일)'을 맞아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 팔복199안전센터에 특별한 손님들이 방문해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덕진구 양현초등학교 4학년 8반 어린이들은 직접 쓴 편지를 선생님을 통해 지난 9일 덕진소방서에 전달했다. 마음을 담은 편지글에는 "항상 저희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 감사합니다. 위험한 불길에도 시민을 살리려고 용감하게 뛰어드는 소방관들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소방관님들을 기억하고 응원하겠습니다"며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편지를 전달받은 전주덕진소방서 팔복199안전센터 직원들은 편지를 읽으며 흐뭇한 시간을 보냈다. 박성진 팔복199안전센터장은 "소방의 날을 맞아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며 "소방관을 믿고 응원해주는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바인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현대차 전주공장, 코로나 위기극복 위한 생명나눔 앞장**

코로나19 사태로 현혈인구가 급감해 심각한 혈액공급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최준혁)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마을혈액원과 함께 지난주와 이번주 각 이틀씩 회사 내 직원식당 앞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랑의 헌혈캠페인에는 지난주 140여 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참여해 데 이어 이번 주도 참여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긴급한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21년째 꾸준히 사랑의 헌혈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다. 2019년 410명, 2020년 274명에 이어 지난해엔 381명의 직원들이 참여하며 따뜻한 생명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이에 힘입어 공식잡계가 시작된 2001년 이후 16년만인 지난 2016년 누계 참여인원 5,000명을 돌파했으며, 2017년부터 작년까지 한 해 평균 250명 이상씩 꾸준히 헌혈에 참여해



누계 6,500명 달성을 앞두고 있다. 이번 헌혈 참가자들 중에는 누계 100회 이상으로 헌혈유공자 명예장을 받은 바 있는 이 회사 상용엔지니어 우경배(남, 54세) 씨가 147번째 헌혈에 나서 주목을 끌기도 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전북병무청, 군산대서 병역면탈 범조예방 홍보**

전북지방병무청 청장 권대일은 군산대학교를 방문해 재학생 대상으로 병역면탈 예방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병역판정검사와 군 입영을 앞둔 학생을 대상으로 리플릿을 배포하며 병역면탈 행위는 중대범죄라는 것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 및 병역면탈 신고제도 등을 홍보하고, 이들이 병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병역을 담당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행정 측면에서 실시했다. 아울러 병무청에서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 병역면탈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국민들의 제보를 연중 접수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국민신문고-신고 및 제보) 또는 전화(080-070-9090, 063-281-3306)를 통해 가능하다. 전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범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한 만큼 병역면탈이 의심스러운 대상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를 할 것"을 요청했다. /김영태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진안군협의회, 바르게한마음대회 성료**

바르게살기운동 진안군협의회(회장 최순석)는 지난 9일 진안문화의 집에서 김민갑 도협의회장, 및 시군 협의회장, 관내 기관단체장 협의회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2022년 진안군 바르게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회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진실·질서·화합'이라는 바르게살기운동 3대 이념을 지역에 확산시키며, 주민의식개선 운동을 결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식선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및 행동강령 낭독, 유공자 포상 순서로 진행됐으며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세상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진안'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결의를 다짐하며 한 해 활동을 결산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유공회원 포상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기여 및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기여한 강홍희, 정재철 회원 등 5명이 도 협의회장, 진안군수 표창 및 공로상을 수상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최순석 회장은 대회사에서 "바르게살기운동 3대 정신과 올바른 의식 정착은 진안군의 희망인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는 등불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김제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교실 어른스 나들이**

김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센터장 송운주)는 지난 11월 8일, 9일 이틀 간 치매예방교실 참여자들과 익산시 왕궁면의 식물원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코로나19 및 신체 질환으로 인해 외부활동이 힘든 어르신들과 함께 아열대 식물로 가득한 힐링 식물원 산책, 아로마 족욕 체험, 킬리바 연주회 등을 진행하였다. 100여종의 식물로 가득한 숲속 정원은 다양한 향기와 소리를 느낄 수 있어 인지 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준다. 또한 아로마를 활용한 족욕 체험, 사해소금 발마사지 등을 통해 긴장을 완화시키고 저수지를 바라보며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이후에는 자조모임과 연계하여 자연 속에서 킬리바 연주회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치매예방교실 어르신은 "그동안 멀리 외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꽃도 보고 하니 기분전환이 되었다며, 앞으로 자연에서 여러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하반기 치매예방교실 나들이는 앞으로 11월 17일 한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치매재활과 정명자과장은 "이번 체험 나들이를 통해 지역 주민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이 채워지고, 치매 예방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제=곽태 기자

**고경운 정읍시의회 의장, 축구협회 감사패 수상**

지난 9일 정읍시의회 고경운 의장이 정읍시 생활체육 축구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정읍시 축구협회(회장 박성규)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박성규 정읍시 축구협회장은 고경운 의장이 평소 생활체육 축구 및 유소년 축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지역에서 열리는 축구대회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하고, "정읍시 생활체육 동호인 축구 지원을 위해 애써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감사패를 수여했다. 고경운 의장은 "시의회 의장으로 생활체육 동호인 축구 활성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감사패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시설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군산중앙신협, 온세상 나눔 캠페인 진행**

군산중앙신협(이사장 김형곤)은 온세상나눔캠페인을 진행하며 군산시 내운3동 주민센터와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물품을 지난 8일 기증했다. 이날 행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것으로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된 신협 어부바 박스와 이불세트(총 500만원 상당)를 전달한 것이다. 군산중앙신협 김형곤 이사장은 "단순한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우리 조합과 봉사회 활동의 목적이다"며 "매년 우리 지역 곳곳에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신협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중앙신협은 올해 10월 말 기준 자산 1,100억, 조합원 7,300명으로 군산지역 대표 시민금융기관으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